

황선홍호 금메달 열쇠, 송민규가 쥐고 있다

아시안게임 우승길 '밀집수비' 뚫어야
힘 앞세운 전차같은 돌파력에 큰 기대
이강인과 와일드카드 3명은 완벽 적응

24일 열린 바레인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에서 황선홍호는 3-0 승리의 결과 외에도 많은 것을 수확했다.

그중에서도 바레인이 펼친, 앞서 상대한 두 팀보다 한 차원 높은 '두 줄 수비'를 제

로 공략해낸 점이 인상적이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 후보 0순위'로 꼽히는 한국을 상대로 정면 대결을 시도할 팀은 많지 않다. 황선홍호는 앞선 3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27일 치를 16강전부터 결승전까지 4경기 모두에서 극단적인 수비 위주의 전략으로 나서는 팀을 상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황선홍호는 지지치 않고 끈질기게 바레인 진영을 공략한 끝에 3-0 쾌승을 거두며 밀집수비를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공략

하는 경험을 했다. 하지만 후반 19분 투입된 송민규(전북)가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송민규는 힘을 앞세운 돌파가 돋보이는 공격수다. 빠르지는 않지만, 투쟁심 넘치는 플레이로 K리그 톱 레벨 공격수 반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황선홍호에서는 그런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송민규가 모든 것을 부수고 전진하는 전차와도 같은 특유의 드리블을 펼쳐 보인다면, 황선홍호는 상대 밀집수비를 깰 훌륭한

카드를 하나 더 갖게 된다.

황선홍호의 대회 3연패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강인은 동료들과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박진섭, 백승호, 설영우 등 와일드카드 선수들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황선홍호에 녹아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송민규의 부활이다.

송민규는 바레인전이 끝난 뒤 "준비 잘 하겠다.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한다. 승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습

LG, 29년 만의 정규시즌 1위 '매직넘버 10'

프로야구 KS 직행 이번주 6경기 고비
2위 kt와 홈 두 경기 1승1패 해도 안심
5위 SSG·6위 KIA 2연전 운명의 대결

LG 트윈스는 29년 만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24일까지 78승 48패 2무, 승률 0.619로 선두를 질주하는 LG는 2위 kt wiz와 격차가 6.5경기다.

LG는 24일 잠실 한화 이글스전에서 5-1로 승리하면서 정규리그 1위를 위한 '매직넘버'를 10으로 만들었다. 매직넘버는 2위 kt가 아닌 경기 수가 더 많이 남은 3위 NC 다이노스와 따진다. LG와 NC의 격차는 8.5경기라 어지간한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 사실상 정규시즌 1위가 유력하다. 하루 빨리 삼패인 마개를 열고 한국시리즈 준비에 들어가고자 하는 LG는 이번 주 6경기 마지막 고비라고 할 만하다.

LG는 6경기 모두 이동 없이 모두 잠실구장에서 경기를 치러 체력을 아낀 채 경기할 수 있다. 당장 26일과 27일 안방에서 벌어지는 2위 kt와 2연전이 기다린다. LG로서는 1승 1패만 거둬서 현상 유지만 해도 경

쟁 팀의 선두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 있다. 그러나 두 경기를 안방에서 모두 내준다면 시즌 마지막까지 피 말리는 경쟁을 이어가야 한다.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두산 베어스와 원정 3연전이 기다린다. LG는 이번 시즌 두산을 상대로 9승 2패의 절대 우위를 지키고 있다. 추석 연휴에 진행되는 '한 지붕 두 가족' LG와 두산의 잠실 3연전은 야구팬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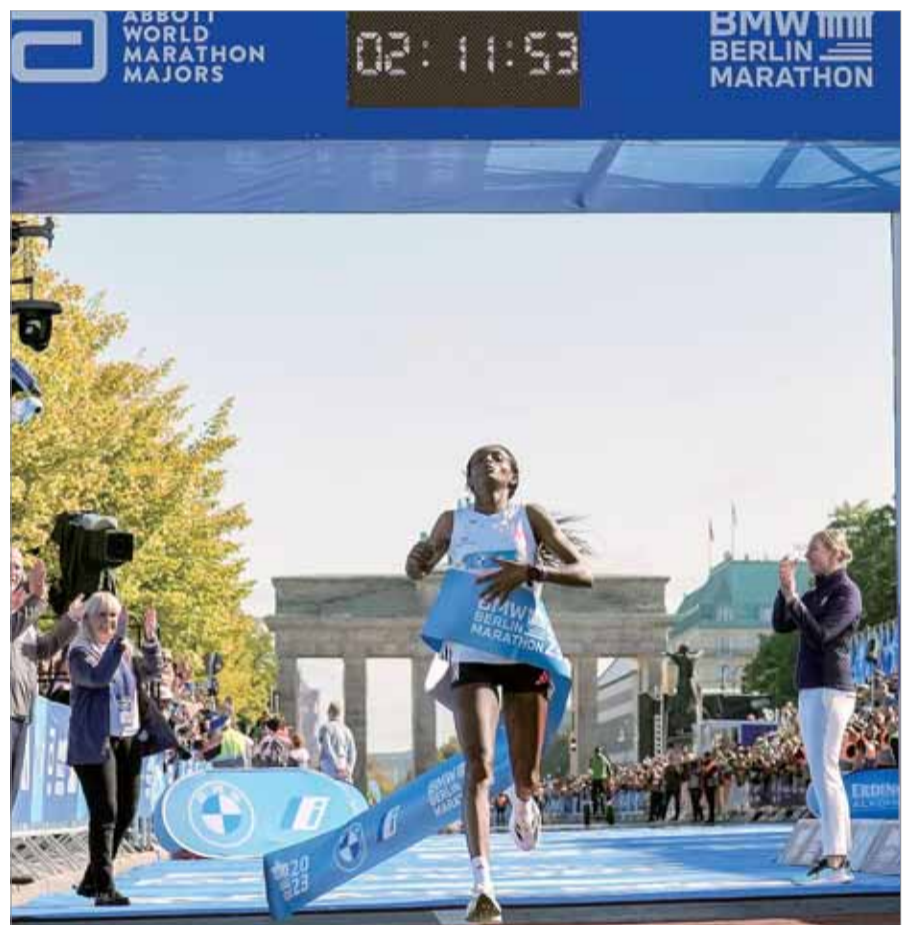
시즌 막판 나란히 부진에 빠진 5위 SSG 랜더스와 6위 KIA 타이거즈도 명운을 건 시즌 막바지를 맞이했다.

투타 엇박자로 고전하는 SSG, 나성범에 최형우까지 부상으로 쓰러진 6위 KIA의 격차는 1경기다.

두 팀은 30일과 다음 달 1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벌어질 2연전에 총력전을 벌인다. 2연승을 거두는 팀은 가을야구 막차 탑승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정규시즌 막판 프로야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자 야구대표팀에 차출된 23명의 선수가 중대한 변수로 자리할 전망이다. 이들의 공백을 채우는 게 10개 구단의 공통 숙제로 남았다.

연습



에티오피아 아세파, 여자 마라톤 '세계신' 에티오피아의 티지스트 아세파(26)가 25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23 베를린 마라톤에서 2시간11분53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아세파는 케냐의 브리지드 코스게이가 2019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작성한 종전 세계 기록 2시간14분04초를 2분11초나 단축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연습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인공지능(AI)·SW 미래 전장 핵심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전문가 특강

군(軍)부대 신청 받습니다

국방부 주최, 전 장병 AI·SW 생애주기 및 소양교육 신청안내

1. 교육개요
 -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전 장병이 AI와 과학기술에 대한 소양 필요
 - 격오지 부대 장병도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직접 부대에 방문
2. 교육대상 : 전 장병(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소속 장교, 부사관, 군공무원 및 병사)
3. 교육시간 : 4시간 이내(개설 횟수 제한 없음)
4. 교육내용 : AI, 드론,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AR/VR, 블록체인, 보안, 진로탐색 등
5. 교육형태 : 부대 방문 교육 또는 온라인(비대면)교육
6. 교육비용 : 무료
7. 신청방법 : 교육신청사이트(kmil.kr) 접속 → 부대 교육담당자가 교육신청(회원가입 필요)
 - * 소양교육 개설현황 : 1,012회(2022년), 10.31까지 교육 신청부대 특전 제공(홈페이지 참조)
 - * 시소양 의무시간(8시간)에 포함, 전역예정자 교육에 활용가능

과학기술 프로그램 안내

NO	구분	교육시간
1	AI 소양	4시간 이내
2	AI 심화	
3	ICT일반	
4	드론	
5	로봇	
6	VR/AR	

NO	구분	교육시간
7	빅데이터	4시간 이내
8	클라우드	
9	메타버스	
10	블록체인	
11	보안	
12	취·창업	

교육특전

- 시범부대 선정 시 가점 제공
- AI·SW 소양 우수부대 선정 및 시상

교육문의

육군·국직 02-6012-7416
해군·해병대·공군 02-761-9160

교육신청

www.kmil.kr
(인터넷망PC, 스마트폰으로 신청가능)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KOSSA 한국공개소스소프트웨어협회
Korea Open Source Software Association

ITSA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